

# 仁慶宮 寢殿의 건축 형태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Forms of ChimJun(寢殿) in InKyungGung

홍석주\* / Hong, Seok-Joo

### Abstract

During the years of KwangHaeGun, an active public services of building large scale palaces such as reconstruction of ChangDukGung and ChangKyungGung and new construction of InKyungGung and KyungFukGung were carried out. And palaces of Chosun dynasty didn't go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KwangHaeGun years.

By analyzing historical records, ancient maps, palace drawings, architectural forms of ChimJun(寢殿) in InKyungGung(仁慶宮) are examined. ChimJun is sleeping rooms of king and queen.

The results are followings:

Since Sejong dynasty, functions of king and queen were starting to differentiate, that during the years of KwangHaeGun, two ChimJun(寢殿) were made.

ChungWaJun(靑瓦殿) is king's sleeping rooms, located in the west among two, and have a blue tiled roof.

KyungSooJun(慶壽殿) is queen's sleeping rooms, located in the east among two.

King's ChimJun built on stone pillars, and queen's ChimJun on a wide base as it called Waldae(月臺).

키워드 : 인경궁, 침전, 청와전, 경수전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조선왕조의 궁궐하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덕수궁), 경희궁을 꼽으며, 조선의 5대궁궐이라고 일컫고있다. 이들은 조선시대의 법궁과 이궁으로서 왕이 공식적으로 임어하였던 궁궐이다. 즉 잠깐씩 머무는 것을 전제로 한 별궁이나 행궁과는 격을 달리하는 궁궐이다. 따라서 당시의 기술력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런데 이들 5개 궁궐이 조선 개국과 동시에 지어지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왔다. 특히 임진왜란 직후 한양에 입성하였을 때 궁궐이 초토화되어 월산대군의 잠저(현 덕수궁)를 고쳐 사용했을 지경에서 대대적인 궁궐들의 중건이 선조와 광해군대에 거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광해군대에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 창덕궁과 창경궁을 중수하는 일 외에 인경궁과 경덕궁(경희궁)을 창건하였는데, 이 두 궁궐은 두 차례의 궁궐 중건<sup>1)</sup> 이후에 있었던 창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시 궁궐의 기능과 기술을 잘 반영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인경궁의 경우는 창건 당시 이궁으로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별궁으로 조성되었던 경덕궁보다 중요한 공사였으며, 인조반정으로 인하여 소실된 창덕궁과 창경궁 중수에 사용하기 위해 헐려 사용되지 못했지만 당시에 기록된 여러 의궤들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궁궐이다. 그러므로 인경궁의 연구를 통하여 조선중기 궁궐 건축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인경궁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정된 지면에 방대한 자료를 방만하게 소개하는 데 그치겠기에, 본 연구에서는 궁궐의 생활이 잘 드러나는 내전의 중심이 되는 침전<sup>2)</sup>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중기 광해군대의 궁궐 건축의 계획원리들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동안 관심밖에 놓여 있었던 인경궁의 가치를 상기시키도록 한다.

## 1.2. 연구 방법

인경궁은 현존하지 않는 궁궐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들을

\* 정회원, 영산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공학박사

1)창덕궁과 창경궁 중건

2)왕과 왕비의 침소가 있는 전각

통하여 문헌 연구로 진행해야 한다.

조선시대의 궁궐 건축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영건 의궤가 있는데, 영건 의궤는 국가에서 큰 공사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현존하는 영건 의궤는 인조조 이후부터 존재한다.

인조조에 있었던 대규모 궁궐 건축 사업으로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들 수 있었는데, 현존하는 영건 의궤들을 통하여 공사 내용을 알 수 있다. 인조조의 영건 사업은 광해군 대의 건축을 이견하는 성격의 작업이 많았다. 따라서, 광해군 대의 건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료들을 역추적하면 어느 정도는 광해군 대의 건축을 가늠할 수 있다.

인조반정 때 창덕궁의 외전과 내전 대부분이 소실되고, 그 이듬해인 인조 2년에 이괄의 난으로 창경궁 내전의 많은 전각들이 소실되었다. 창덕궁과 창경궁의 대부분 전각이 소실되어 궁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이에 대한 신속한 중건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방법으로 인경궁을 철거한 자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인조 11년에 작성된 『昌慶宮修理所儀軌』와 인조 25년에 작성된 『昌德宮修理都監儀軌』, 그리고 인조 26년에 작성된 『儲承殿儀軌』에 당시의 공사 내용이 나와 있다.

<표 1>은 『창경궁수리소의궤』에 나오는 전각의 이견 내용 중에서 주요 전각만을 발췌한 내용이다. 이렇듯 『창경궁수리소의궤』에는 撤毀되어 이견된 전각의 명칭 뿐 아니라 규모도 명기되어 있다.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는 자재의 이동 내용을 위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철회, 이견 내용이 전각별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철회자재의 내용을 통해 인경궁의 전각 내용을 알 수 있다.

<표 1> 『창경궁수리소의궤』의 주요전각 이견 내용

관할 부서	조성 전각		철회 전각	
1소	通明殿	5칸 4면퇴, 28칸	靑瓦殿	5칸 4면퇴, 36칸
	思誠閣	4칸 전후퇴 월랑 5칸 전후퇴	觀信堂	12칸 전후퇴
2소	養和堂	3칸 사면퇴, 20칸	無逸堂	3칸 4면퇴, 20칸
3소	歡慶殿	5칸 4면퇴, 28칸	文明殿	28칸
	歡慶殿 西月廊	12칸	廣運堂 북행랑 남행랑	8칸, 4칸
	橫家	5칸	文明殿내행랑	5칸

또한 『광해군일기』는 당시의 영건 과정과 배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 외에도 『宮闕志』, 『漢京識略』, 궁궐도 등과 같은 고문헌을 통한 검증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광해군대의 인경궁에 관한 고문헌과 도면, 옛 지도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광해군대의 건축 형식을 파악하도록 한다.

## 2. 인경궁의 창건과 침전의 구성

### 2.1. 인경궁의 창건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궁궐<sup>3)</sup>을 중건하는 사업은 선조대부터 이루어졌는데 승하 후에 광해군대에 와서야 완성되었다. 그러나 광해군은 노산군과 연산군이 폐위되었던 창덕궁으로 가기를 꺼려하였다.<sup>4)</sup> 그래서, 移御를 미루고 협소한 경운궁에 머물러 있었다가, 광해군 3년에 창덕궁으로 이어하였다. 그리고, 광해군 8년부터는 인왕산 아래에 인경궁과 경덕궁을 새로 짓도록 하였다.

에초에 인경궁은 離宮으로 시작하였고 법궁인 경복궁 중건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큰 재목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고,<sup>5)</sup> 별궁으로 출발했던 경덕궁도 간소하게 지을 생각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화려하게 건축하게 되었다.

광해군 8년부터 시작된 인경궁의 공사가 길어지자 경덕궁을 우선 완공하도록 하였는데, 광해군 12년 11월에 경덕궁이 거의 완공을 보았다.

경덕궁은 광해군 9년에 영건 제의가 있는 후 광해군 12년에 거의 완공을 보았으니, 3년 가량의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졌다.

인경궁은 경덕궁을 우선 완공하기는 하였지만 공사를 중단하는 일 없이 지속되었다.

경덕궁이 완공되고 난 후, 광해군 13년 1월부터는 인경궁 공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미처 완성되지 않았을 때 왕이 폐위되었다.

광해군이 인경궁 공사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폐위되었다고는 하지만, 주요 전각들은 이미 다 조성되어 폐위되던 해인 광해군 15년에는 인경궁으로 이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인경궁의 공사는 광해군 8년부터 15년까지 지속되었으니, 7년 가량이나 공사가 지속되었다.

인경궁과 경덕궁 공역은 기존의 궁궐을 재건하는 창덕궁과 창경궁 공사와는 다른 성격이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舊基에 옛 제도를 고증하고 참조하여 지었으나, 인경궁과 경덕궁은 새롭게 터를 닦고 향배를 결정하고 규모와 건축형식을 모두 새롭게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중기 궁궐의 기능과 필요성을 반영하는 궁궐이 인경궁과 경덕궁이다.

그러나 인경궁은 광해군이 폐위되어 완공을 보지 못했고, 인조조에 철회되었기 때문에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철거된 궁궐로 알려져 왔다.

3) 조선조의 법궁은 경복궁이었으나 내전이 더욱 잘 조성되어 있는 창덕궁을 우선적으로 중건하였다.

4) 『光海君日記』卷62, 5년 正月 己未

5) 『光海君日記』卷114, 9년 4월 辛酉, “이궁의 터가 크지 않으니 적당한 크기의 재목을 쓰는 것이 옳다. 일찍이 사대부의 집을 조성하는 재목과 같은 크기의 재목을 배어오는 일...離宮基址不大,以適中材木用之可矣曾將如士大夫家造成材木斫來事...”

## 2.2. 침전의 구성

경복궁에 교태전이 처음으로 지어진 것은 창건 후 50년 가량 지난 세종 22년(1440년)의 일이었다.

세종조에 교태전을 창건했을 당시에도 왕비의 寢殿으로 사용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실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액운이 이와 같으니, 조그마한 집에 옮겨 거처하고 東宮으로 하여금 關內에 들어와 있게 하고자 하는데, 康寧殿, 萬春殿, 千秋殿, 延生殿, 慶成殿, 思政殿과 같은 것은 이른바 正宮이고, 威元殿, 交泰殿, 紫薇堂, 宗會堂, 松栢堂, 麟趾堂, 清燕樓는 내가 세운 조그마한 집인데 正宮이 아니니, 장차 동궁으로 하여금 거처하게 하였더니, 대신이 불가하게 여기기에, 내 다시 생각해 보니, 함원전, 교태전은 세자가 거처할 수 없으므로, 세자로 하여금 인지당에 들어와 거처하게 하고, 그 侍女들은 자미당, 송백당, 종회당에 나누어 넣는 것이 어떨까 하였더니, 대신들이 또 말하기를, ‘만일 세자가 들어가 거처하면 임금에 다시 들어오기 어렵겠다’고 하는데, …6)”

즉, 교태전 남쪽에 배치된 강녕전, 경성전, 연생전, 사정전, 천추전, 만춘전은 正宮이고, 교태전은 정궁이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세종조에 교태전을 조성하였을 때에도 강녕전을 왕의 침전으로 하고, 교태전을 왕비의 침전으로 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신들이 교태전 등의 전각을 세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나라에 재변이 닥쳐 임금이 法宮을 피하면서 세자가 법궁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도 있겠으나, 교태전이 경복궁 내전의 중요한 전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실록에 언급되어 있는 교태전에서 일어난 주요 활동을 보면, 교태전은 왕이 비공식적으로 신하들을 접견하는 일이 주로 이루어졌다. 교태전에서 세조가 정승이나 도승지와 같은 몇몇 신하들과 국정을 의논하거나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던 기록을 찾을 수 있다.<sup>7)</sup> 즉, 중건 이전의 경복궁에서 교태전은 왕비의 정침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이 사용하였던 침전임을 알 수 있다.<sup>8)</sup>

교태전은 전각명에 있는 ‘交泰’라는 문자를 왕과 왕비가 만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추정하여 왕비의 침전이라고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交泰’를 꼭 왕과 왕비와의 만남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과 신하와의 만남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sup>9)</sup>

그리고, 교태전이 왕비의 침전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는 또 다른 근거는 교태전에 월대가 갖추어지지 않은 데에 있다. 교태전에는 월대가 없는 口字 형태의 닫힌 공간으로, 행사를 치르기에는 좁은 공간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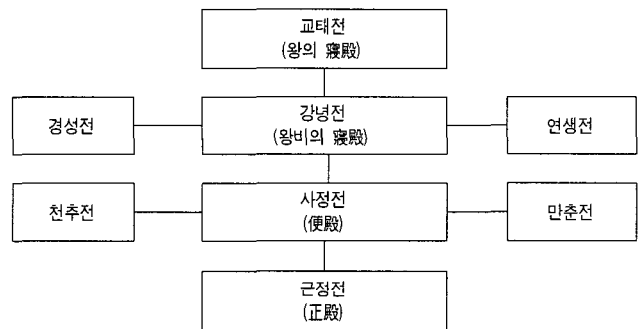
그런데, 편전에서 정무를 본 후에 작은 술자리를 열거나 일부 신하와 접견하려면 便殿 가까이에 임금의 寢殿을 두는 것이 편리할 듯하는데, 강녕전이 먼저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교태전을 강녕전 뒤에 지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강녕전에는 넓은 월대가 있다. 그리고, 왕비가 주최하는 행사는 강녕전에서 치뤄졌다.

그 외에도 왕이 勤政殿이나 思政殿에서 잔치를 할 동안 왕비는 강녕전에서 잔치를 하였던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세종조에는 왕과 왕비의 침전을 따로 둘 것을 생각해 하여 경복궁에 두 개의 침전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왕의 침전인 교태전을 가장 빈번히 사용했던 임금은 세조였다.

<표 2> 세종조 경복궁의 배치 개념



이처럼 세종조 이후 경복궁에 正寢殿 외에 왕의 침전을 따로 두었다는 것은, 그 이후로는 왕의 침전을 따로 필요로 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성종조에 조성된 창경궁에는 경복궁과 달리 正寢殿으로 통명전만을 두었다고 알려져 있다.

창경궁은 대비들을 위해 창건된 궁궐이므로 왕이 사용 주체인 다른 궁궐과는 계획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창경궁에는 정침전으로 통명전이 있으나, 그 외에도 경춘전과 환경전이라는 침전을 더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비전이 세 전각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때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체로 경춘전은 여자가 사용하였고 환경전은 남자가 사용하였다.

따라서, 창경궁이 대비전을 위해 영건되었지만 正殿과 便殿을 고루 갖춘 것처럼, 침전도 남자의 침전과 여자의 침전으로

6) 『세종실록』 권 124, 31년 6월 丙寅 - 厄運如此欲移居小家分東宮入處關內若康寧萬春千秋延生慶成思政殿是謂正宮威元交泰殿紫薇宗會松栢麟趾堂清燕樓是予所建小室也非正宮故將使東宮居之大臣不可故予更思之威元交泰殿世子不可居也分世子入處麟趾堂其侍女分入紫薇松栢宗會堂何如大臣又以爲若世子入處則君上復還爲難…  
7) 예종 1/1/20세조께서 야인들을 접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의장을 갖추지 아니하고 內苑이나 혹은 교태전에서 때때로 인견하셨으므로, 야인들이 매우 감동하여 기뻐하였습니다.  
8) 동궐도의 전각배치 형태를 보면 경회루 동쪽 길을 통하면 강녕전을 거치지 않고도 편전에서 교태전으로 통할 수 있다. 그리고 『한경지략』에 보면 경회루 뜰에 신하가 출입했던 광경이 묘사되어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9) 광순조, 「궁궐운영을 통하여 본 조선전기 경복궁의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p.24~30

기능을 나누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종조 이후에는 왕과 왕비의 침전의 기능이 분화되어 갔으며, 광해군대에는 이러한 요구에 맞게 두 개의 寢殿을 설치하여 왕비의 침전인 정침과는 별도로 왕의 침전을 따로 두었다.

한편, 인경궁의 침전건축에 관하여 광해군일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光海君日記』 권 115, 9년 5월 癸未 條 : …전교하기를, “알았다. 이번의 이 신궐은 옛 터에다 그대로 중건하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正殿의 높이와 전 안의 넓이 및 寢殿의 제도에 대해서 일일이 상세히 의논한 다음, 그림으로 그려서 계품해서 결정지으라. 그리고 두 寢殿은 景春殿과 明光殿의 규례에 의거하여 향배를 정하여 짓는 것이 옳다. 그러나 다시금 施文用과 性智 등에게 물어서 상세히 살펴 조성하라…”

『光海君日記』 권 116, 9년 6월 甲寅 條 : 전교하였다. “兩 寢殿은 대조전의 제도에 의거하여 조성하되, 그 사이에 고쳐야 할 곳이 있을 경우, 차지내관의 말을 듣고서 상세히 요리해서 각별히 잘 짓도록 하라. 이 두 殿은 위에서 가서 지세를 살펴 본 뒤에 기둥을 세워야 한다. 두 건물은 大小와 廣狹를 똑같이 조성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그러나 다시금 시문용 등에게 물어서 상세히 의논하여 잘 지으라.”

즉, 인경궁에는 규모가 같은 두 침전을 지었는데, 그 규모는 대조전을 따라서 지었고, 향배는 창덕궁의 경춘전과 명광전의 예에 따라 지었다.

인경궁의 침전으로 추측되는 전각으로는 경수전, 靑瓦殿, 承華殿, 壽樓堂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규모와 移造된 전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寢殿으로 추측되는 전각 비교

전각명	규모	정면×측면	移造된 전각	移造된 전각의 성격
仁慶宮 慶壽殿	5칸 4면퇴	45칸	昌德宮 大造殿	昌德宮의 正寢殿
仁慶宮 靑瓦殿	5칸 4면퇴	36칸	昌慶宮 通明殿	昌慶宮의 正寢殿
仁慶宮 承華殿		45칸	儲承殿	世子宮
仁慶宮 壽樓堂	5칸 4면퇴	28칸	昌慶宮 景春殿	昌慶宮 內 여자들의 寢殿
昌慶宮 文明殿	5칸 4면퇴	28칸	昌慶宮 歡慶殿	昌慶宮 內 남자들의 寢殿

그 중에서, 세자궁인 저승전을 중건할 때 인경궁의 세자궁을 헐어 지었다는 기록이 있고,<sup>10)</sup> 儲承殿의 전각명에 들어간 ‘承’자를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므로, 承華殿은 세자궁이었다고 추정된다.

10) 『인조실록』 권 48, 25년 8월 甲申 條 : “동궁의 儲承殿, 平善堂을 새로 지었다. … 지금 大內의 공역이 절반도 더 마쳤는데, 米布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 공장이를 파하기 전에 仁慶宮의 동궁을 헐어 옮겨서 殿 하나와 堂 하나를 세우는 일이 매우 편합니다.” 하니, 상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정침전은 慶壽殿과 靑瓦殿이었을 것이다.

또한, 外寢殿의 후원 堂은 혹은 閣을 두었는데, 환경전의 예에 따라 조성되었고,<sup>11)</sup> 첫째 별당과 셋째 별당을 문명전의 규모대로 지었다고 광해군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인경궁의 침전을 계획할 때, 규모는 창덕궁을 따랐지만 세부 사항은 대체로 창경궁의 예에 따라 지었는데, 이는 창경궁이 광해군이 등용한 인물들로 구성되었고 바로 전에 있었던 공역이라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 3. 경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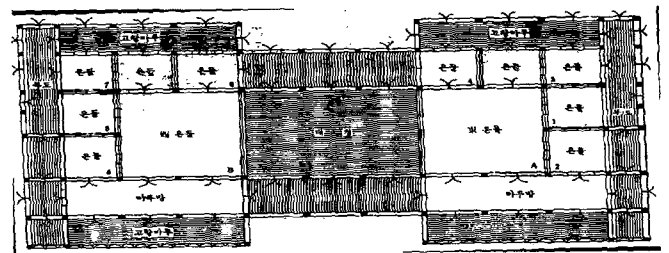
#### 3.1. 공간 구성

인경궁에는 두 개의 침전을 두었는데, 그중 하나가 慶壽殿이다. 인경궁 慶壽殿은 인조조 창덕궁 수리때 철거된 인경궁 전각으로, 45칸 건물이다.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는 경수전의 규모만 명기되어 있을 뿐, 이건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당시 인경궁 전각을 철거하여 지어진 대조전이 45칸인 것으로 보았을 때, 경수전이 대조전으로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宮闕志』에 의하면 창덕궁의 대조전은 ‘坤殿正堂也’라고 되어 있다. 즉, 형식상으로 정침전은 왕비의 침전으로 되어 있다.

대조전의 평면 구성을 보면, 대청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방을 두어서 각 공간을 왕과 왕비가 쓰게 된다. 즉, 대청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에 방을 배치하여 대칭적인 형태로 구성된다. 여기서 대청은 대청 구조의 중심으로 작용한다. 침전에서 궁중 행사가 있을 때 대청에 御座가 마련되는 것도, 대청이 가장 중심적이고 위계가 높은 장소임을 말해준다. 그래서, 『東闕圖』에 표현된 대조전의 지붕이 층단을 두어 대청 부분을 높게 하였다. 그리고, 대청과 방 주변에는 退間을 두어서 부속실이 둘러싸고 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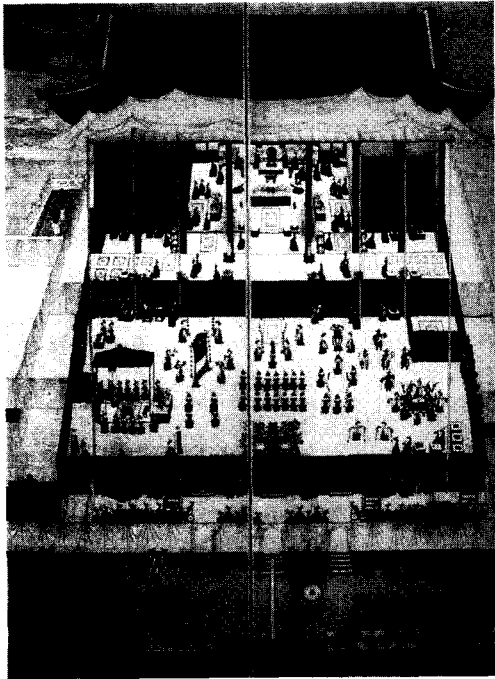
<그림 1> 창덕궁 대조전 평면도(출처: 김용숙, 『조선궁중종속연구』, 일지사, 1996)

궁궐의 침전에서는 왕과 왕비의 수면, 식사, 갯, 세수, 휴식, 생리적 행위와 사적인 제반 활동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접견과 공식적인 행사도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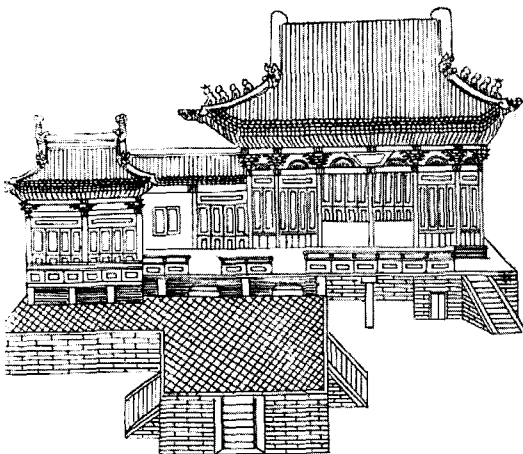
11) 『光海君日記』 권 115, 9년 5월 癸未

12) 김순아, 조선시대 宮闕건축 寢殿의 내부 공간 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104 참조

조선조 궁중의 큰 행사는 대체로 正殿과 便殿, 그리고 正寢殿에서 이루어졌는데, 궁중에 연회와 같은 큰 행사는 주로 正殿과 便殿, 그리고 正寢에서 이루어지는데, 왕은 정전이나 편전을 사용하고, 왕비는 正寢을 사용하였다. 특히, 會禮宴이나 養老宴을 행할 때에, 왕비는 內殿에서 잔치를 베풀도록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왕비가 주최하는 크고 작은 연회와 같은 행사는 침전에서 치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침전이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행사를 치르는 것이다.



<그림 2> 『戊申進饌圖屏』, 『通明殿進饌圖』(출전 : 박정혜, 『조선시대궁중기록화연구, 일지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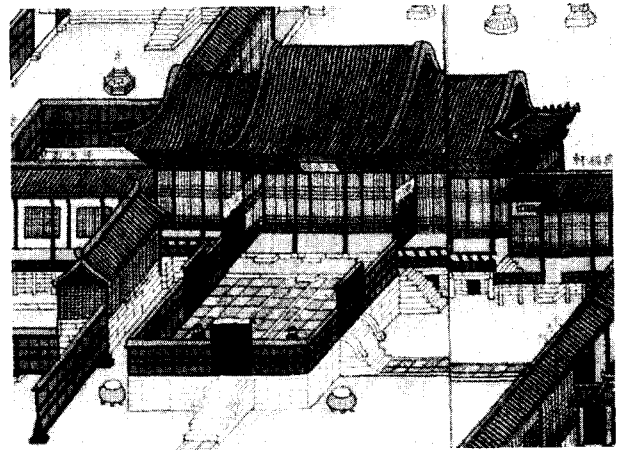


<그림 3> 『西關營建都監儀軌』의 隆福殿

월대는 지면보다 건물을 높게 하여 전각의 위용을 돋보이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궁중에 행사가 있을 때 전각 밖의 월대가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궁중에서 있는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는 월대가 필요하므로, 정침전에도 월대가 갖추게 된다. 이는 같은 광해군대에 창건된 경덕궁 내에 정침전에 해당하는 용복전에 월대가 설치되어 있음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따라서, 인경궁에 정침전인 경수전은 대조전으로 이전되었고, 45칸 규모를 하였다. 또한 월대를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昌德宮 대조전(『東關圖』의 부분도)

### 3.2. 의장적 특성

경수전이 인경궁의 정침전이었다는 사실은, 창덕궁 중건 때 慶壽殿의 철거를 다룬 1소의 작업 내용에서, 철책 자재 중에 夫弓瓦와 女弓瓦가 있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弓瓦는 현재 曲瓦라는 용어로 쓰이는 자재와 동일하다고 사료되는데, 용마루가 없는 지붕에 사용하는 기와이다.

한편,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 나오는 담당 부서별 전각 명칭과 청기와의 수량을 비교해 보면, 1소가 4소의 2배에도 못미친다. 1소는 정전인 흥정전과 정침전인 경수전과 관련있고 4소는 편전이 광전전과 관련있는데, 정전과 편전의 규모를 가능할 때 이들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더욱 큰 경수전의 지붕이 청기와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잡상이나 용두도 청기와는 따로 표기하였는데 궁와는 夫弓瓦, 女弓瓦로만 표기한 것으로 보아 청기와의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수전에는 동월랑이 퇴를 합하여 19칸 반이 있었고, 남월랑이 퇴를 합하여 22칸반이 있었으며, 6칸짜리 남행각과 3칸짜리 동행각이 있었다. 따라서, 동쪽과 남쪽에 월랑과 행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쪽(오른쪽)에 있는 침전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靑瓦殿은 서쪽에 위치했을 것이다.

즉, 인경궁에 있는 두 개 정침 가운데 서쪽에 있는 침전은 靑瓦殿이며, 동쪽에 있는 침전은 경수전이다.

따라서 경수전은 인경궁의 정침전으로, 45칸 규모에 용마루가 없는 지붕을 하고 있었다.

<표 4>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 나오는 철채전각

관할부서	철채 전각명
<1소>	慶壽殿 및 행랑, 행각, 월랑, 慶寧殿 행랑 및 행각, 弘政殿, 重輝堂, 燒廚房, 內祿庫, 酒茶房, 正順堂 등행랑, 光政殿 남월랑, 十字閣 뒤 평행랑, 崇德堂 행각, 北別堂
<2소>	和政堂 및 행랑, 월랑, 延和門 및 외월랑, 玉辰樓 및 부속사, 壽士廳, 內班院 및 행랑, 長房, 承政院 행랑, 寶慶前廊, 水閣西邊月廊, 光政殿 북월랑, 會通門, 端陽門, 延祥門, 沖默堂 및 행랑
<3소>	慶極堂, 仁德堂 및 월랑, 慶寧殿 서월랑, 福寧殿 월랑 및 행각, 崇德堂 행각 및 월랑, 內祿庫, 中政門外北月廊, 外南月廊, 尙衣院 衣樹房, 慶寧殿 행랑 및 행각, 월랑, 廂庫, 仁德堂 동월랑, 正順堂 앞 측간, 興慶門, 一閣門
<4소>	光政殿 및 월랑, 행각, 弘政殿 북월랑, 弘政門 동월랑, 외남월랑, 中政門 남월랑, 外政門 남월랑, 남월랑, 水閣
<5소>	弘政門외남월랑, 북월랑, 承政院, 注書廳, 臺諫廳, 體元門월랑, 外司 糞院, 內司糞院 樓廊, 弘政門, 尙衣院 樓廊, 六六門, 興慶門 평월랑, 十字閣뒤평랑

<표 5> 昌德宮 중건시 소요된 주요 철채 자재(기와)

부재명	1소	2소	3소	4소	5소
靑夫瓦	4,860장			2,520장	
靑女瓦	12,560장			5,650장	
靑夫防草	282장			223장	
靑女防草	208장			205장	
靑龍頭	8				
靑雜象	23			21개	
靑朱代	2				
靑單骨莫只				304개	
半丈靑女瓦				275개	
黃瓦				63장	
夫瓦	14,365장 3,970장	30,083장	20늘 478장	15,002장	34,298장
女瓦	대 6,720장 중 26,120장	53,438장	35늘 438장	27,186장	62,840장
夫方草	1,295장	1,583장	910장	2,215장	1,110장
女方草	1,400장	1,590장	903장	1,920장	856장
夫弓瓦	63장				
女弓瓦	63장				
雜像	70좌	孫行者 2좌 猓犬 20늘			24개
土首	5		3개		
龍頭	9좌	2首	6개		
鷲頭	2	2首			
勿頭 物頭		4首			10개
上樑大物頭					2개
衝椽物頭					4개
廣大瓦		2개			

## 4. 청와전

### 4.1. 의장적 특성

인경궁에는 두 개의 침전을 두었고, 靑瓦殿과 慶壽殿이 그것이다. 그런데, 靑瓦殿은 정확한 전각 명칭이 없이 지붕재에 따른 특징인 ‘靑瓦殿’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는, 전각명이 미처 지어지기 전에 인조반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仁慶宮에서 청기와를 덮은 건물에 관한 기록은 正殿인 弘政殿과 便殿인 光政殿만이 실록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昌德宮 중건 과정에서 인경궁의 弘政殿과 光政殿이 철채된 것으로 의궤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昌慶宮으로 옮겨진 靑瓦殿은 弘政殿이나 光政殿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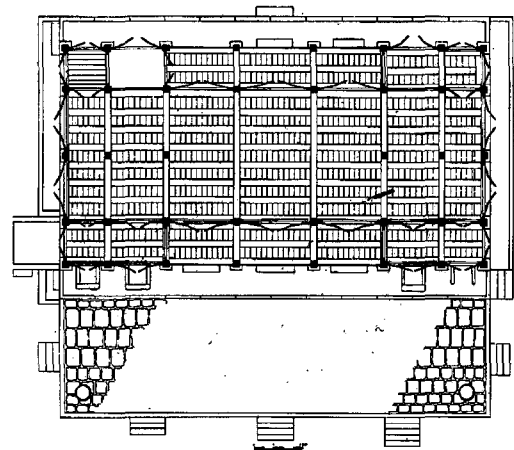
또한, 인조조에 仁慶宮을 철채하여 이긴하였을 때에는 용도가 유사한 건축물을 옮겨 와서 거의 그대로 조립하는 것에 가까운 공사를 했었고, 靑瓦殿이 철채되어 昌慶宮의 正寢殿인 통명전으로 이긴되었으므로, 靑瓦殿이 두 개의 寢殿 건물 중 하나였을 것이다.

『창경궁수리소의궤』에 의하면, 靑瓦殿은 5칸 4면퇴를 한, 총 36칸 건물이다.

靑瓦殿을 철거하여 이긴한 통명전 공간에 관하여는 『宮闕志』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通明殿 二十八間 二翼工 無樑閣 柱長 十一尺 樑通 御間 二間 十一尺式 前後退 七尺式 道里通 御間 三間 十三尺式 左右狹間 十兩尺式 左右退 七尺式…

즉, 통명전은 정면 7칸, 측면 4칸의 28칸 건물이다. 그런데, 정면 9칸, 측면 4칸인 靑瓦殿은 정면 7칸, 측면 4칸인 통명전보다 정면이 두 칸 더 크다. 따라서, 통명전 정면의 협칸을 하나씩 더하면 된다.



<그림 5> 통명전 평면도 (출전 : 『조선고적도보』)

### 4.2. 의장적 특성

청와전은 흥정전과 광정전 외에 청기와를 씌웠던 침전 건물이다. 그런데, 寢殿 건물에 靑瓦를 씌웠다는 것은 특이한 사실이다. 청기와는 景福宮과 仁慶宮의 正殿과 便殿에 사용되었는데, 正殿은 朝禮를 거행하고 법령을 반포하며 朝賀를 받는 곳이고, 便殿은 重臣들과 국정을 의논하는 곳이다. 즉 청기와는 朝廷의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각에 어울리는 재료이다. 그런데 두 개의 침전 중에 청기와를 씌운 전각이 있다는 것은,

그 중 한 전각은 공식적인 업무 수행과 연관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각으로 靑瓦殿을 지었을 것이다. 따라서 靑瓦殿은 임금의 주로 사용하는 寢殿으로 중신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지는 곳으로 생각된다.

寢殿에서는 일상 생활 외의 행사를 치르는 일과, 왕의 측근들과 비공식적인 접견과 술자리가 이루어졌다. 행사를 치르는 일은 왕비의 寢殿인 정침전에서 이루어졌고, 측근들과의 비공식적인 술자리와 같은 일을 왕의 寢殿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인경궁에서는 왕이 거처하면서 신하의 접견이 이루어진 寢殿은 靑瓦殿이고, 왕비가 일상 생활을 하고 내전의 행사가 이루어진 寢殿은 慶壽殿이 된다.

仁慶宮에서 靑瓦殿에는 청기와를 씌웠고, 또 다른 寢殿인 慶壽殿은 靑瓦殿 보다 규모가 더 크지만 청기와를 씌우지 않았다.

이처럼 두 개의 침전에 기와를 다르게 사용한 것은 지붕의 형태를 통해 각 침전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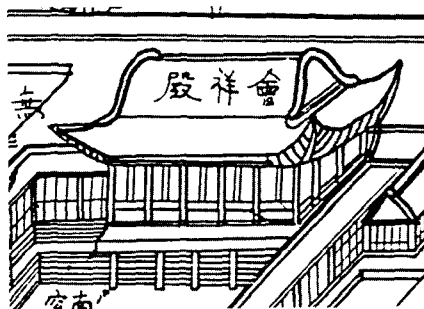
인경궁과 같은 시기에 건립된 경덕궁의 침전의 경우를 보면, 『宮闕志』에 정조가 지은 『慶熙宮志』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희궁의 正寢은 隆福殿이다. 隆福殿의 서쪽에는 會祥殿이 있는데 임금이 거처하는 內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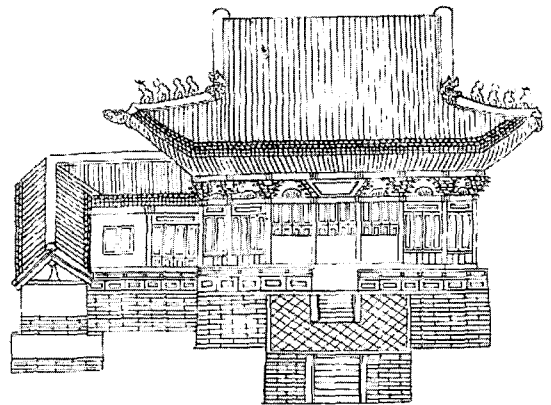
즉, 會祥殿은 서쪽에 있는 寢殿으로 임금이 사용하였고, 隆福殿은 동쪽에 있는 寢殿으로 正寢이다. 따라서, 正寢과 임금의 內室을 따로 두었다는 것은, 왕과 왕비가 사용하는 正寢 외에 임금이 거처하는 寢殿을 별도로 두었다는 얘기다.

『西闕圖案』에 묘사된 會祥殿의 형태는 누각의 형식처럼 기둥 위에 전각이 조성되어 있지만, 순조조에 간행된 『西闕營建都監儀軌』에서는 隆福殿처럼 넓은 월대는 아니지만 월대 위에 조성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숙종 19년에 慶德宮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간행된 『慶德宮修理所儀軌』를 보면, 會祥殿의 수리 내용에 樓柱를 사용했던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순조조의 공역 때 변형된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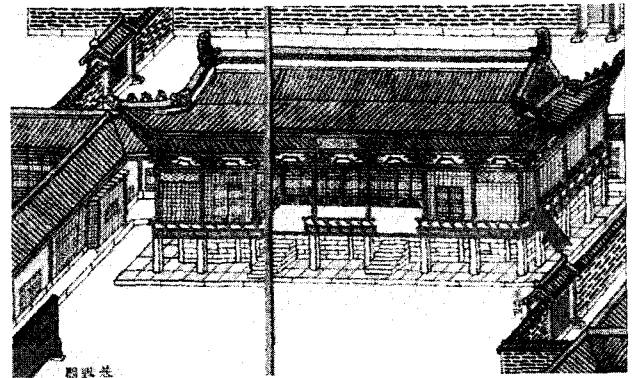


<그림 6> 慶德宮 會祥殿  
(『西闕圖案』: 묘사도-출전-경희궁지발굴조사보고서)



<그림 7> 『西闕營建都監儀軌』의 會祥殿

이처럼 침전에 월대를 두지 않고 누각의 형태처럼 기둥 위에 건립한 경우는 『동궐도』에 묘사된 환경전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8> 昌慶宮 환경전(『東闕圖』의 部分圖)

창경궁의 歡慶殿은 중종이 여기서 승하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翼宗<sup>13)</sup>의 殯宮으로 삼았던 곳이다.<sup>14)</sup> 따라서, 환경전은 昌慶宮에 있는 寢殿 중에서 주로 남자들이 사용하였던 건물이다. 또한 환경전은 石柱 위에 전각을 올린 형식을 하고 있어서, 慶德宮에서 왕의 寢殿으로 생각되는 會祥殿을 『西闕圖案』에서 기둥 위에 전각을 조성한 것으로 묘사한 형태와 유사하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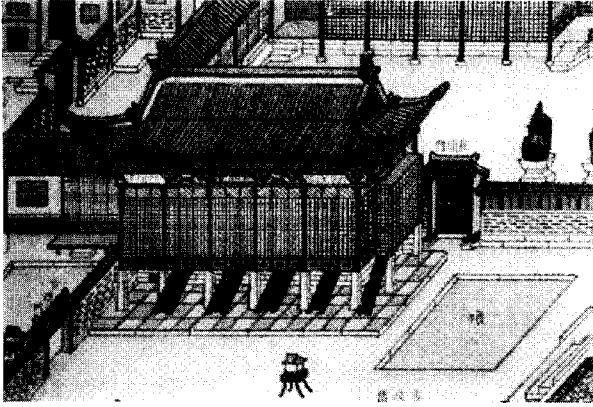
이처럼 루의 형식을 취했다는 것은 내전의 영역에 속하면서 편전의 기능을 했던 창덕궁의 회정당이나 경덕궁의 흥정당과도 유사한 개념이다.

즉, 왕의 침전으로서 청와전은 내전에서 이루어진 왕의 집무 기능을 함께하는 침전임을 시사한다.

13)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

14) 『昌慶宮志』, 『宮闕志』

15) 會祥殿은 慶德宮에 있는 두개의 正寢殿 중에서 서쪽에 있는 寢殿으로, 『宮闕志』에 임금이 사용했다고 되어 있다.



<그림 9> 昌德宮 회정당(東關圖의 부분도)

즉, 인경궁에 위치한 두 개의 침전 중에서 서쪽에 위치한 청와전은 청기와 지붕을 하였으며 누각처럼 기둥 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5. 결론

현존하는 조선조의 궁궐은 창건시기가 모두 다르며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궁궐을 파악하기 위해 현존 유구에만 의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대를 한정하여 궁궐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대대적인 궁궐의 공사가 있는 후에 간행되는 의궤는 해당되는 시기의 궁궐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적인 참고 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중기에 창건된 인경궁의 침전에 관련된 의궤를 비롯한 고문헌과 궁궐도 등의 사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광해군대에 건립된 인경궁의 침전은 임진왜란 직후 조선중기의 궁궐의 건축 내용을 잘 반영한다.

寢殿에서는 일상 생활 외의 행사를 치르는 일과, 왕의 측근들과 비공식적인 접견과 술자리 등이 이루어졌다. 행사를 치르는 일은 왕비의寢殿인 정침전에서 이루어졌고, 측근들과의 비공식적인 술자리와 같은 일을 왕의寢殿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분리된 용도가 인경궁의 침전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인경궁에는 두 개의 침전을 나란히 두었는데, 경수전과 청와전이다.

경수전은 인경궁의 정침전으로 45칸 규모에 용마루 없는 지붕을 하였다. 경수전은 인조조에 철해되어 창덕궁의 대조전으로 이견되었다.

청와전은 인경궁에 위치한 왕의 침전으로 36칸 규모에 청기와 지붕을 하였다. 正殿과 便殿에 쓰이는 청기와를寢殿 건물에 썼으며 누각의 형식처럼 기둥 위에 건립되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정무를 집행했음을 암시해 준다. 청와전은 인조조에 철해되어 창경궁의 통명전으로 이견되었다.

이처럼 인경궁의 침전은 두 개의 침전을 나란히 두어 정침전과 왕의 침전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침전은 서로 의장을 다르게 하여 양 침전의 기능과 성격이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인경궁의 침전은 세종조 이래로 정침전 외에 별도로 왕의 침전을 둘 필요성이 제시된 후, 이러한 변화된 필요성이 조선 중기에 새롭게 조성된 궁궐에 반영되어, 차별성을 둔 의장을 통해 그 성격을 나타낸 좋은 사례가 된다.

또한, 이러한 사료 분석을 통한 궁궐을 해석하는 작업은 많은 가능성을 제시해 주며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昌慶宮修理所儀軌, 인조11년(1633년)
2. 昌德宮修理都監儀軌, 인조 25년(1647년)
3. 儲承殿儀軌, 인조 26년(1648년)
4. 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 효종 3년(1652년)
5.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효종 8년(1657년)
6. 集祥殿改修都監儀軌, 현종 8년(1667년)
7. 慶德宮修理所儀軌, 숙종 19년(1693년)
8. 西關營建都監儀軌, 순조 32년(1832년)
9. 朝鮮王朝實錄, 태조~철종
10. 宮闕志, 현종 연간
11. 柳本藝, 漢京識略, 1830
12. 東關圖
13. 西關圖案
14. 慶熙宮址發掘調査報告書(集慶堂, 會祥殿, 隆福殿 및 龍飛泉 주변)
15. 서울특별시, 1998
16. 박인곤, 韓國建築史講論, 문운당, 1995
17. 이철원, 王宮史, 동국문화사, 1954
18. 안희준, 옛 宮闕 그림, 대원사, 1997
19. 김왕직, 조선후기 궁궐건축의 조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
20.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21. 김동욱, 인조조의 昌慶宮 昌德宮 조영, 문화재 21, 1986
22. 김용숙, 朝鮮朝 宮中風俗 연구, 일지사, 1996

<접수 : 2003. 4. 28>